

“올 시즌 안방 지키며 홈런 한번 쳐야죠”

제임스 恨

소니 오픈 맹추격…6차 연장 끝 준우승

KIA 포수 한승택의 포부

‘큰 무대 체질’ 같아도 긴장해

가을야구·국가대표 뛰며 성장

투수는 나를 키우는 스승

아프지 않고 풀타임 뛰고 싶어

“올 시즌이요? 홈런 한번 치고 싶어요”라면서 신나게 웃던 한승택. ‘큰 무대 체질’의 KIA 타이거즈의 포수 한승택이 업그레이드된 2018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한승택은 휴식기를 맞은 챔피언스필드를 부지런히 오가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체력 테스트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지난 시즌을 통해 얻은 것들을 잃지 않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다.

한승택은 “체력테스트 통과해서 캠프를 가야 한다(웃음). 본가에 5일 정도 다녀오고는 계속 광주에서 운동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쉴 때는 쉬는 게 좋았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하다. 1군에서 20경기 정도 뛰다가 지난 시즌 96경기를 뛰었다.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 연봉도 더 올리고 싶고, 지난 시즌에 많은 것을 보고 얻으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2017년은 한승택에게 ‘경험의 시즌’이었다. 2016년 LG와의 외야드결정전에서 침착한 리드로 눈길을 끈 한승택은 그 기세를 몰아 2017시즌 입단 후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에 섰다. 우승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표로 뛰기도 했다.

“큰 무대 체질이라고 하는데 사실 긴장을 많이 한다. 시즌 때 못하니까 기분만 해도 잘하게 보이는 것 같다.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가을에 강한 것도 같다”며 웃은 한승택은 “지난해 야구하면서 쉽게 못 해볼 것들을 많이 해봐서 좋았다. 우승은 언제나 기쁘다. 대표팀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워왔다. 포수가 어린 나이에 뛰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 내가 뽑혔다는 것도 좋았다.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재미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표팀을 돌아보면 일본전 스리런을 허용한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고 포수로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명 같은 장면이기도 하다.

한승택은 “그때 주자가 1·2루였고 다음 타자가 백업 포수였다. 윈 스트라이크 스리볼이라서 채워서 가도 되는데 만루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승부를 했다”며 “결과론이다. 잘했으면 나이스 피칭이었을 테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고, 결과가 잘못됐으니 내 책임이다. 그때로 돌아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많이 물어보 시더라. 야구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다시 선택해도 직구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변화구를 던졌을 것 같다”고 웃었다.

‘투수’는 한승택과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그를 키우는 스승이다.

한승택은 “어린 포수들은 투수가 좋으면 같이 크는 것 같다. 한국시리즈에서도



KIA 타이거즈의 포수 한승택이 홈런타자와 풀타임 활약을 목표로 2018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긴장은 많이 했지만 투수들 공이 좋으니까 편하게 했다”며 “A급 투수와 경기를 하고, 위기를 막으면서 같이 크는 것 같다. (양)현종이 형은 승부욕이 강하다. 그런 면에서 많이 배운다. 내가 낸 사인과 다르게 가기도 하는데, 이래서 이걸 던졌구나를 배운다. 경험치 많으니까 무덤덤하게 상황에 맞게 경기를 풀어간다. 여유 있는 모습이라서 같이 여유 있어 진다. (임)기영이 형은 경험도 없는데 여유가 있다(웃음). 멘탈이 정말 좋다. 제구와 변화구가 워낙 좋아서 역으로 승부를 가기도 하고, 변화구로 상대를 유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쟁자이기도 한 김민식도 한승택의 야구 실력을 키운 스승이다.

한승택은 “투수들처럼 포수도 멘탈이 썩어야 한다. (김)민식이 형은 멘탈이 좋다. 불배합에 정답은 없는데 기본적인 것이 있다. 민식이 형은 응용을 잘한다.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운다. 저런 상황에서 저런 볼 배합도 가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 지난 시즌 많이 배웠다”고 돌아봤다. 팀의 승리에 대해 기본 좋게 이야기하는 게 한승택이 그러는 2018시즌의 모습이다. 홈런 타자 한승택도 2018시즌의 꿈이다.

한승택은 “1월부터 9월까지 다 뛰었는데

데 점수를 하나도 안 쳤을 때 기분이 최고다. 지난해 헛타와 완투승을 했는데 투수와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팀이 승리하고 최소실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며 “개인적으로는 홈런이 목표다(웃음). 지난해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파울 홈런을 쳤는데, 풀에서 한참 벗어났는데도 너무 아쉬웠다. 지난해 2루타와 3루타를 처음 쳤다. 한 시즌 사이클링 히트가 목표다. 무엇보다 안 아프고 풀타임 뛰는 게 목표다. 시즌마다 한 번씩 아팠다. 이번에는 아프지 않고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시즌을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재미동포 제임스 한(37·한국어를 한재웅·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20만 달러)에서 6차 연장 끝에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제임스 한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4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1개로 막아 8언더파 62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3타로 4라운드를 마친 제임스 한은 패튼 키자이어(미국)와 6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분패, 투어 통산 3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반면 지난해 11월 OHL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달성한 키자이어는 2017-2018시즌 첫 2승을 거둔 선수가 됐다. 우승 상금은 111만 6000달러(약 11억 8000만원)다.

두 선수는 5차 연장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고 17번 홀(파3)에서 6차 연장을 치렀다. 6차 연장에서 둘의 티샷은 나란히 그린 오른쪽 러프에 떨어졌으나 남은 거리가 제임스 한이 더 멀었다. 퍼터로 굴린 두 번째 샷은 제임스 한의 공이 홀 약 2m 남짓한 곳에 멈췄고, 키자이어는 약 1m 파 퍼트를 남겼다.

제임스 한의 파 퍼트는 홀 오른쪽을 맞고 나가는 바람에 결국 보기에 머물렀고, 키자이어는 파 퍼트에 성공하며 길었던 연장 승부를 마무리했다.

2015년 2월 노던 트러스트오픈, 2016년 5월 웰스 파고 챔피언십 우승을 모두 연장전에서 겨루던 제임스 한은 연장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제임스 한은 18번 홀(파5)에서 치러진 5차 연장에서 약 3m 가까운 버디 퍼트를 넣

었더라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장면이 아쉬웠다. 3라운드까지 9언더파로 선두에 7타 뒤진 공동 14위였던 그는 맹추격에 나서 연장전에 진출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김시우(23)는 5언더파 275타, 공동 58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3경기만에 졌다

맨시티, 리버풀에 3-4 패…시즌 20승 2무 1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에 시즌 첫 패배를 안겼다.

리버풀은 15일 오전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열린 2017-2018 EPL 23라운드에서 7골을 주고받는 공방 끝에 맨시티를 4-3으로 제압했다.

리버풀은 이날 승리로 13승 8무 2패(승점 47)가 되며 3위로 올라섰다. 선두 맨시티는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며 20승 2무 1패(승점 62)가 됐다.

리버풀은 호베르투 피르미누와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등을 앞세워 맨시티의 골문을 노렸다. 맨시티도 라힘 스티어링, 셰르히오 아귀로, 케빈 데 브라이너 등 최적의 멤버로 맞붙었다.

리버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반 9분 만에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임벌린이 피르미누의 패스를 받아 맨시티의 골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맨시티도 전반 40분 로로이

사네가 원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을 1-1로 마친 양 팀은 후반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반 6분 맨시티 니콜라스 오타멘디의 헤딩슛이 골대를 강타하고 나왔다. 한숨을 돌린 리버풀이 피르미누의 골로 기세를 올렸다.

후반 15분에는 마네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 나갔으나, 마네는 이어진 공격에서 원발로 골망을 갈랐다. 7분 뒤에는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살라가 잡아 직접 슈팅해 4-1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그러나 맨시티도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39분 베르나르두 실바가 만회 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일카이 쿨도간이 다시 한 골을 만회하며 4-3까지 추격했다. 맨시티는 이후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리버풀이 이를 잘 틀어막으며 승리했다.

/연합뉴스

29경기째 안졌다

바르샤, 레알 소시에다드에 4-2 역전승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친 FC 바르셀로나가 레알 소시에다드에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무패 행진을 29경기로 늘렸다.

바르셀로나는 15일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의 아노에타에서 열린 2017-2018 프리메라리가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4-2로 꺾었다.

바르셀로나는 프리메라리가에서 최근 5연승을 포함해 무패(16승 3무)로 1위(승점 51)를 달렸다.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42)와는 승점 9차이다.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8월 중순 스페인 슈퍼컵(슈페르코파)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패한 이후 리그는 물론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레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29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홈 경기장인 아노에타에서 2007년 이후 이어지던 ‘무승(2무 5패)’ 사슬도 끊어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전반 11분 윌리안 호세에게 선제골을 얻어맞고, 34분엔 후안 미 히메네스에게 한 골을 더 내주면서 무패 행진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4분 뒤부터 반격이 시작됐다. 전반 38분 루이 수아레스의 낮은 패스를 파울리뉴가 미끄러지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한 골을 만회한 바르셀로나는 후반 5분 리오넬 메시가 내준 것을 수아레스가 로빙 슈트으 연결해 균형을 맞췄다.

기세를 올린 바르셀로나는 후반 36분 수아레스의 역전 결승 골로 경기를 뒤집었고, 40분엔 메시가 한 골을 보태 해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최지만, 밀워키와 150만달러 계약…테임즈의 1루수 백업 자리 노려

최지만(27)이 150만 달러(약 15억 9000만원)에 미국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계약했다.

최지만의 에이전시 GSM은 15일 “최지만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고 밀워키와 계약 절차를 마쳤다. 13개 구단의 러브콜을 받은 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밀워키는 KBO리그 최우수선수 출신 에릭 테임즈(32)가 뛰는 곳이다. 최지만은 현실적으로 테임즈의 1루수 백업 자리를 노린다. 경쟁자는 해수스 아길라다.

최지만은 2017년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경기에 6차례 출전해 15타

수 4안타(타율 0.267), 2홈런, 5타점을 올렸다. 에이전스에서 된 2016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54경기 타율 0.170(112타수 19안타), 5홈런, 12타점이다.

최지만은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수준은 뛰어넘는 타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잡지 못했지만, 꽤 많은 구단이 최지만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아길라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5, 16홈런, 52타점을 올렸다. 최지만이 밀워키를 택한 것은 ‘일대일 경쟁’을 위해서였다. 최지만이 외야수로 뛸 경험도 있어, 경쟁에서 유리한 면도 있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하면 연봉 85만 달러(약 9억 원)를 받는다. 메이저리그 타석에 따른 보너스도 있다. 200타석을 채우면 20만 달러를 받고, 100타석이 추가될 때마다 10만 달러를 더 받는다. 타석 수로 최대 65만 달러까지 추가를 받을 수 있다.

밀워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을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GSM은 “스프링캠프 말미와 6월 15일에 행사할 수 있는 2번의 옵트아웃 조항이 있다. 성적이 좋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옵트아웃으로 이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KBO 타이틀스폰

신한은행이 프로야구 KBO리그의 새로운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한다.

KBO가 15일 신한은행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KBO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앞으로 3년간 KBO 리그 정규시즌과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 리그 전체에 대해 독점적인 타이틀 스폰서 권리를 보유한다.

KBO와 신한은행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2층)에서 조인식을 한다. 조인식에서는 타이틀 명칭, 엠블럼,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